화마 입은 절망 현장에 '희망나무' 심어요

울산불교환경연대 '탄소흡수림' 조성

산불 현장 울주 청량면 일대
호두나무 400그루 숲일구기
탄소 흡수림 조성 위한 활동
기후 위기 막는 생태계 복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화마(火魔)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나무들은 타다 남은 검은 줄기를 안고서 몸살이었다. 건조한 땅은 밟을 때마다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황폐한 분위기를 더하듯 먼지가 앞을 가렸다. 올해 3월 산불이 덮친 울주군 청량면, 스님들과 주부, 학생, 어린이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었다. 어린 호두나무를 심으며 자연과 생명을 지킬 숲을 꿈꿨다. 생명을 지키는 '방생의 숲'이 탄생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가 11월 7일 '탄소흡수림 조성을 위한 나무방생 법회'를 울주군 청량면 삼정로에 위치한 산불 현장에서 개최했다.

나무생태방생은 화재로 인해 사라진 숲에 나무를 심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흡수림' 조성 활동이다. 탄소흡수림 조성을 위해 나선 사람은 스님들이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불교환경연대 前상임대표 법일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고문 덕진 스님(정토사), 전 상임대표 능행 스님(정토마을), 공동대표 혜진 스님(벽선암), 효암 스님(여여선원), 운영위원 혜경 스님(법왕사), 화정 스님(성담사), 지월 스님(도솔암) 외 경남, 대구 등에서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른 새벽에 출발해 광주에서 왔다는 청빈암 정현 스님은 일찍이 묘목방생을 위한 동전모금도 진행했다.

청빈암 신도 30여명은 물고기 방생보단 나무숲 조성에 의미를 뒀고 동전모금에 앞장섰다. 아울러 김점복 양산국유림관리소장,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울산우신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 울산불교환경연대 회원 등 250여명이 동참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가 11월 7일 '탄소흡수림 조성을 위한 나무방생 법회'를 울주군 청량면 삼정로에 위치한 산불 현장에서 개최했다.

나무심기에 앞서 참석자들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마음을 모았고 스님들과 내빈들은 인사말 및 격려사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나무심기를 위해 가수 라마의 응원곡도 마련됐다. 아울러 이어진 나무심기 설명에 아이들은 진지하게 집중했고 삼삼오오 조를 이뤄 출발했다.

산불현장에 도착한 스님들은 삽으로 땅을 파며 "내가 왕년에 울력을 좀 했다"며 웃었고 엄마의 손을 잡고서 곡괭이에 손을 얹은 채 동참한 어린이들도 있었다. 구슬땀은 흘러 땅을 적셨고 가을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화창했다.

참가자들은 "말 그대로 민둥산이었다. 나무들이 울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나무를 심고 나서 보니 푸른 미래가 보인다.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날 심긴 호두나무는 총 400그루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울산불교환경연대는 지난 9월 29일 양산국유림관리소와 '탄소흡수림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나무심기를 위해 울산불교환경연대는 동전모으기를 진행, 묘목을 마련했고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도 나무를 후원하며 함께 동참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자연보호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 갈 것이란 다짐이다.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오늘 상처 입은 산에 나무를 심듯이 이웃과 사회에도 희망을 심어주어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나무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해 주는 자연 탄소해결사이기에 탄소흡수림을 조성했다. 어린이, 청소년 등 우리 미래 세대들과 함께 해 더욱 뜻깊은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가치 알리는 거리 홍보 눈길

부산생명나눔실천, 11월 7일 12회 장기기증 캠페인 진행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생명의 가치와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는 11월 7일 초읍 학생교육문화회관 앞 야외광장에서 '제12회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개막식은 본부장 심산 스님의 인사말을 비롯해 휠체어 전달식으로 이어졌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매년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하며 휠체어가 필요한 환자를 선정, 전달해 왔다. 올해는 부산보훈병원, 성모병원, 메리놀병원 등 부산지역 병원에서 9명의 환자가 선정됐다.

행사장에는 오전부터 장기기증 캠페인 부스와 손소독제 만들기, 타투, 잔디머리 인형 만들기 등 각종 체험부스가 마련돼 시민들과 함께 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매년 1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장기기증 캠페인 및 걷기 행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를 축소하고 의미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11월 7일 초읍 학생교육문화회관 앞 야외광장에서 '제12회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은 "생명의 가치를 알리고 불교의 참된 보살행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는 축소되었어도 마음의 크기와 나눔의 실천은 더욱 커 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소년·중견작가 콜라보 나눔전시회

'예술과 함께하는 참좋은 인연전' 개최

예비 청소년 미술작가들의 꿈을 키우는 전시회가 열렸다. 광주 관음사(주지 소운)에서 운영하는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은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1층 로비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참좋은 인연展'을 개최하고 청소년작가와 중견작가의 문화체험 및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사진>

청소년 문화예술 꿈키움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김영태, 김용태, 김정연, 김현우, 오기배, 윤순홍, 이동진, 이인호, 임현채, 최윤아, 한민정, 탁정은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견 작가 12명을 비롯해 17명의 청소년 작가들이 참여한다.

전시회는 어려운 환경에서 예술분야에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 작가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중견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콜라보 작품전으로 총 50점이 전시된다.



11일 오픈식에는 관장 소운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을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참여작가 등이 참여했다. 행사서는 작가소개, 축하공연, 컷팅식, 작품감상 등이 진행됐다.

소운 스님은 "코로나19 시대는 근본적으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주었다. 서로 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을 돋아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술이란 자기 근본을 탐구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이다. 불교에서 수행자의 수행과정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청소년 작가들이 꿈을 잃지 않고 당당한 예술인으로 성장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수련관 측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만들어진 수익금으로 미술 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유스캔TV, 진료토크콘서트 등 비대면 프로그램과 체육활동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인사, '코끼리행복문화센터' 문 열다

주지 현응 스님, "소통과 자비의 정신으로 운영할 것"

합천 해인사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복공간 '코끼리 행복문화센터'를 개관했다.<사진> 해인사는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주민들과 종교를 넘어선 화합의 장소로 이끌 것이라 밝혔다.

해인사(주지 현응)은 11월 11일 코끼리 행복문화센타 1층에서 '우리동네 행복아지트 코끼리 문화센터' (이하 코끼리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코끼리문화센터는 지역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합천 지역 아동과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문을 열었다. 아울러 해인사와의 소통을 이루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마을학교 사업과 지역 아동돌봄 등 아동 복지기여 활동이다. 아울러 보호대상 아동과 학대 아동, 학대 받는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청소년을 위한 각종 문화강좌를 제공하고 다문화 주민 지원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시설은 합천군 가야면 가야시장로98 해인사 가야포교당이며 연면적 952.25㎡ 지상 2층 규모로 휴식 공간인 카페와 강의실, 방송실 및 사무실 등이 있다.

개관식에는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진인성 해인사 신도회장, 문준희 합천군수 ,변석우 합천 경찰서장, 김경미 합천교육 지원청 교육장, 이중기 합천소방서장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주지 스님의 인사말과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코끼리행복문화센터 소개 및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

주지 현응 스님은 "센터의 운영 방침은 소통과 자비의 정신이다"며 "성숙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고 지역주민과 어린이, 청소년 모두를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끌자"고 당부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코끼리문화센터가 모성애와 책임감 있는 코끼리 같이 지역민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역민을 위한 행복공간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양산 기청사, 법철 대종사 3주기 추모법회

경남 양산 법화도량 기청사 사부대중이 3년 동안 삼경당 법철 스님의 원적을 추모하며 정진했다. 주지 묘혜공 스님과 불자들은 법화행자였던 법철 스님의 정진 당부를 이어 법화경 독경소리로 법당을 채웠다.

경남 양산 법화도량 기청사(주지 혜공)는 11월 8일 기청사 법당에서 '삼경당 법철 대종사 원적3주기(대상)'를 회향했다.<사진>

회향 법회에는 주지 혜공 스님, 청룡암 일선 스님, 자광사 종광 스님, 법송사 도명 스님, 연화사 경덕 스님 외 사부대중 30여명이 동참했다.

주지 혜공 스님은 "회향을 맞아 수행자 본연의 모습과 자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며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더욱 용맹 정진하는 수행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도탑 건립 불사를 추진하고 스님의 일대기 및 가르침을 책으로 정리해 큰스님 전에 올리겠다"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응공조계종, 창종 9주년 법회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11월 11일 총본산 경북 칠곡 동명사에서 창종 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법등 스님, 원로의원 홍원총무 지암 스님, 비구니회장 계현 스님, 법운 문도회 스님 등이 참석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창종과 함께해 온 종도 스님과 사부대중들은 삼독을 버리고 자기를 바로 보고 육바라밀을 행하여 마음을 비워 물소리 바람소리 처럼 살아가자"고 했다.

이날 법회는 5타 타종, 육법공양, 삼신이운, 운심공양게, 중단권공 등 식전행사에 이어 삼귀의례. 반야심경, 발원문, 내빈소개, 공로패 증정, 봉행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익산 관음사, 공양미 나눔 콘서트 개최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공양미를 전달하기 위한 제3회 공양미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사진> 11월 7일 관음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공양미 나눔 콘서트는 관음사 주지 덕림 스님,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장, 정헌율 익산시장, 김성규 대불청 전북지구 회장, 이강자 관음사 청년회장 등 불자 시민들이 참여했다.

공연에 앞서 덕림 스님은 "여러 신도님들이 모아주신 공양미가 익산시청에 전달돼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이 훈훈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로 3번째 열리는 공양미 콘서트는 관음사 청년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와 나눔의 보살행을 실천하고 익산 관음사의 목조보살입상을 모실 관음전 건립 추진을 위해 열리고 있다. 이날 모아진 공양미는 3,120kg으로 11월 12일 익산시청에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직지사 응진전·약사전 부처님 개금불사 회향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법보)가 응진전과 약사전 불상 개금불사를 회향했다.

직지사는 11월 6일 응진전, 약사전 앞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진전 삼존불 및 약사전 약사여래불 개금불사 회향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 주지 법보 스님은 "응진전 석가여래 부처님의 복장물을 개봉하며 조성기가 발견됐다. 내용을 확인하니 조선 현종 9년(1668) 천불전 천불 조성 당시 협시불로 조성된 석가여래 부처님이고, 좌우에 모셔진 16나한님들도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납승의 재임기간 중 여법하게 개금불사를 봉행함은 물론이고, 개금불사를 계기로 석가여래불과 16나한상이 언제 조성됐는지 밝혀지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